

안녕하십니까.

유전자재조합농산물(GMO)이 지난 20여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식량자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한건의 부작용도 보고된 바 없는데도 우리 국민의 GMO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GMO반대 운동가들의 지속적인 허위선전과 반과학적 억지주장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과학계의 안전성 평가에 근거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과 유용성을 인정하고 사용을 허가한 식량에 대해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농업발전과 식량공급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는 2018년 3월 19일 제6회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농업혁신 동향과 R&D 정책방향 II - 농업과학 혁신기술’을 개최하고 생명공학 신기술의 필요성과 실용화를 위한 국민교육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동 포럼 자료집을 보내오니 참고하시고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해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이 GMO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GM식품의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게 되면 거의 모든 식품에 GM표시가 붙게 되므로 ‘사먹을 식품이 없다’는 국민적 불만으로 광우병대란보다 더 무서운 식량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GM식품의 완전표시제를 하려면 GMO의 안전성에 대한 범국가적 국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20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철호